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RIS사업으로 대학교육 혁신 나서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음 2월 19일) 제321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소프트웨어 미래인재 남원서 키울 기회 생겼다

도-남원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공모 선정… 국비 42억 확보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교육센터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남원에서 소프트웨어 미래인재들을 양성할 기회가 생겼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2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은 도서벽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본사업에 선정됨으로써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96.6억원(국비 42, 도비 12.6, 남원시 42)이 투입 가능하게 되었다.

사업주관은 (재)전북테크노파크이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주)디랩과 협업하고 전북도, 전북도교육청, 남원시가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센터 구축, △소프트웨어전문강사의 양성 및 채용,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서벽지 방문교육 등이다.

먼저 도는 남원시와 함께 남원시 금동에 건축 중인 복합형 공공도서관 부속 건물에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거점교육센터를 구축한다.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거점교육센터가 들어설 남원 복합형 공공도서관 조감도.

여기에 드론, 메타버스,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최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과 소프트웨어 교육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전북도교육청과 협력해 전주, 무주, 순창 교육지원청 내 공간을 활용해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퇴직전문가 등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전문강사를 매년 7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약 160시간 이상의 체계적인 교육, 정기적인 역량 강화 세미나 등을 통해 강사의 전문성 향상도 도모한다.

이에 더해 기본적인 코딩교육 외에도 실습 체험 위주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지역별 맞춤 특색 교육, 교육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찾아가는 교육 및 방과 후 교육 등도 진행해 연간 3,000명 이상을 교육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초가 되는 미래인재 양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북도의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사업이 아이들의 미래 설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9일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거행된 고 성공일 소방교 영결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헌화 분향하고 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장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우리를 떠났지만, 그를 기억하겠습니다"

故 성공일 소방교 영결식, 전북도청장으로 엄수
유가족 · 동료 소방관 등 참석 고인 넋 기려

김제시 금산면의 단독주택 화재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조하다 순직한 성공일(30) 소방교의 영결식이 9일 오전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전북도청장으로 엄수됐다.

〈관련기사3면〉

이날 영결식은 국가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로 시작해 1계급 특진 추서, 훈장 추서, 조전 낭독, 영결사, 조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을 비롯해 김관영 도지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한병도·이원택·오영환 의원,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김관영 도지사는 장례위원장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전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고인의 순직을 국민과 함께 애도한다. 한없이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은 화재 현장에서는 물러섬이 없고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는 청년이었다. 현장에 고립된 사람이 있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불길로 뛰어들었던 고인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결사에서 "고 성공일 소방교는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소방관이었다.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고인은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며 "그 마음에 고맙고,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고인은 우리를 떠났지만 그를 기억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유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고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고인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성 소방교는 6일 오후 8시33분 김제시 금산면의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숨졌다.

그는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곧장 화마 속으로 뛰어들었으나 불이 갑자기 치솟았고, 성 소방관과 집 안에 있던 70대 남성 모두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김재훈 기자

도 자치경찰, 자율방범대와 동행 '첫 단추'

위원회, 간담회 열고
자율방범대법 시행 앞서
방범대 현장 목소리 청취
모범대원 4명에 표창 수여
"전북에 선한 영향력 기대"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9일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 자율방범대 간담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 자율방범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시군별 자율방범연합대 대표 및 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앞서 자율방범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또한 자율방범활동에 헌신한 모범대원 4명에게 도지사 및 위원장 표창도 수여했다.

자율방범대법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지역 치안을 위한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현재 도내 자율방범대는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를 포함해 15개 지역별 연합대에 속하는 286개의 방범대가 운영 중이며, 활동 대원은 7,300여 명이며, 경찰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취약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지역축제 및 중요 행사 교통질서 유지 활동 등을 하며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자율방범대 협업·지원업무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재정 수반되는 정책은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과 효율적 재정지원을 적절히 조합해 도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율방범대의 봉사활동이 전북도에 미칠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업무가 지난 1월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됐다. 또한 김정수 전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조례는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맞춰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